

## Sungji's story

### Yoobee College 학생 후기

From Bachelor of Software Engineering  
to Master of Business Informatics  
-Health Care Informatics

### Student profile

이름: 김성지

국적: 대한민국

학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사 (1년)

비즈니스 정보학 석사(헬스케어)

### 자기소개 및 배경

####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지입니다. 한국에서 작업치료와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다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만들고 싶은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술 분야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유비컬리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전 전공에서 배운 사람 중심의 시각과 기술을 결합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Q2. 뉴질랜드에 오게 된 계기와 첫인상은 어땠나요?

호주 워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계속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다시 갈지, 뉴질랜드로 가볼지 고민했는데, 일단 뉴질랜드에서 1년 정도 살아보면서 결정해보자는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의 첫인상은 '여유롭다'와 '자연이 정말 좋다'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카페에서 일하게 됐는데, 동료들도 모두 편하고 친절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쉬는 날에는 오클랜드 주변을 자주 돌아다녔는데, 가까운 곳에서도 놀랄 만큼 예쁜 자연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 학업 선택 이유

#### Q3. 처음에는 작업치료학을 전공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사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IT 관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 쪽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분야가 꽤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오래 살아갈 걸 생각했을 때, 적어도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습니다.

#### Q4. Yoobee College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유비컬리지는 다른 학교보다 프로젝트 중심 수업이 많다는 점이 가장 끌렸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만들어보고, 팀원들과 소통하면서 배우는 방식이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영어를 실생활에서 많이 써야 늘 수 있다고 믿는 편이라, 팀 프로젝트 환경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포트폴리오와 실제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비컬리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학 후에도 기대했던 것과 잘 맞았고, 지금도 만족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학업 경험

#### Q5. Bachelor of Software Engineering 과정에서 1년을 마친 소감은 어떠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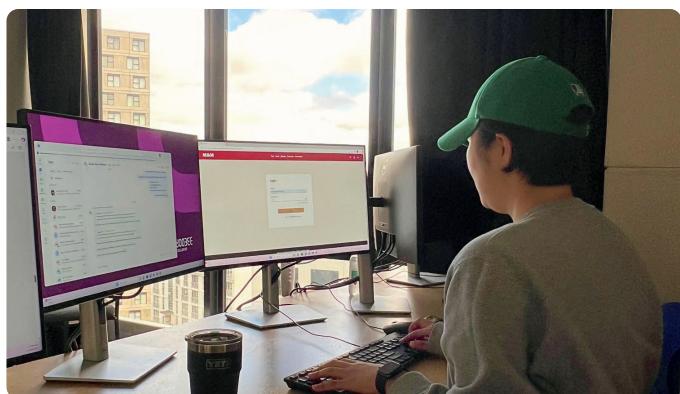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입학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새 파이널 과제 발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배우는 속도가 느린 건 아닌지 걱정도 많았는데,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니 그동안 노력한 만큼 확실히 실력이 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어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었고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 Q6. 학업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과 도전적이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CS104 과제였어요. 뉴질랜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혼자 앱을 만드는 과제였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조금씩 형태가 잡히니까 기대도 되더라고요. 개발을 하면서 에러도 계속 나오고, 로직을 처음부터 다시 짠 적도 여려 번 있었는데 그 과정이 꽤 도전적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결과물을 제대로 완성하고 좋은 성적까지 받았을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 Q7. 교수진, 커리큘럼, 실습 환경 등에서 기대했던 부분과 실제 경험은 어떻게 달랐나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교수님들과 직접 소통할 일이 많지 않았고, 질문 한 번 하려면 미리 시간 잡고 찾아가야 해서 조금 번거로웠습니다. 그런데 유비컬리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교수진이 항상 가까운 곳에 있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책으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먼저 와서 "어디 막혔어?" 하고 물어봐 주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주는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Kevin 튜터와는 특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 덕분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력이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 학업 계획 변경

#### Q8. 2학년으로 진학하는 대신 Master of Business Informatics – Healthcare Informatics 과정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와 새로운 과정에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유비컬리지에 Master of Business Informatics – Healthcare Informatics 과정이 새로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학년을 공부하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쪽을 특히 좋아한다는 걸 느꼈는데, 현재 전공은 그 부분을 깊게 다루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인포메틱스를 중심으로 배우고, 파이썬까지 다룰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됐다는 걸 보고 저한테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보건계열을 공부했던 경험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매력적이었어요. 단순히 전공만 바꾸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과 앞으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1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헬스케어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깊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학년 말에는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꼭 해보고 싶어요.

### 뉴질랜드 생활과 진로 목표

#### Q9. 워킹홀리데이와 고용주 비자 경험이 학업 및 진로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일해볼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도 다르다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일할 때 내가 더 잘 맞는지’ 스스로 많이 알게 됐어요. 고용주 비자 기간 동안에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 직업이 아니라, 기술과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의 학업과 진로 계획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 Q10.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뉴질랜드에서 지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생활 속 여유와 사람들의 분위기가 저랑 잘 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할 때 과하게 경쟁적인 분위기가 없고,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편하게 느껴졌어요.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과 삶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여기서라면 오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환경도 큰 이유였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곳만 가도 금방 바다가 보이고, 산이나 공원 같은 곳이 잘 갖춰져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여서 뉴질랜드에서 계속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어느정도 준비가 됐다고 느껴질 때 그냥 시작해  
보는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니까요.

#### Q11. 졸업 후 어떤 커리어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졸업 전에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이나 인포메틱스 관련 인턴십을 시작해서 그곳에서 계속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공과 연결되는 직무를 꾸준히 찾아보면서 경험을 쌓아갈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서,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영주권도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미래 학생들에게 조언

#### Q12.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를 선택할 때는 결국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전공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지가 우선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은 공부 환경이라고 봅니다. 유비컬리지는 오클랜드 시티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교실이나 휴게공간도 실용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 대학은 아니지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국제학생 입장에서 학비도 무시할 수 없죠. 유비는 다른 학교보다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고, 장학금 기회도 있어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돼서, 제 반 친구들도 모두 주말이나 평일에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Q13. 본 과정을 고려하는 국제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고민이 많고, 결정할 때 오래 생각하는 편이라 큰 선택을 쉽게 못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유학이나 전공 변경도 많이 주저했었는데, 지금 1년을 돌아보면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시작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 공부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노력한 만큼 늘고, 과제도 하나씩 해내더라구요.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를 기다리기보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느껴질 때 그냥 시작해 보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말해주세요.

